SYMP-01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과 향후 추진 과제

김창길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환경팀장

에너지·기후 시대(energy-climate era)를 맞이하여 기존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달하고 있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래를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내외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핵심과제로 대세를 이루고 있고, 향후 상당기간 동안 국내외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성장 추진전략 마련에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부문의 경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2.5% 정도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인 온실가스 관리 측면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농업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관리는 물론이고 향후 녹색산업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녹색성장의 실천전략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음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성장의 패러다임이 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양적 성장이었다면 녹색성장은 생산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태효율성을 제고 시키는 질적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부문도 기존의 생산성 증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환경과 농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편안함과 관행적 타성에서 탈피하여 불편함과 위험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주체의 발상전환을 통해 불편함을 오히려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작물의 생산과정 및 청정 농업기술을 통해 대기정화와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농업부문만의 독특한 녹색산업으로의 특성을 유지하고 녹색성장을 이룩하는 실천전략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인과 유관단체 및 정책담당자 모두가 함께 하는 녹색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효과적인 집행체계가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체제로 확실하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정체제 전반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부문 전반에 녹색성장의 개념이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 저탄소 환경정책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관련 분야 정책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 연구자, 유관기관, 농업인 등 관련주체가 녹색성장을 공감하고 적절한 역할이 수행될 수 있는 농업부문의 녹색혁신시스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하는 녹색기술을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전략이 수립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농업은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녹색산업으로,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생명산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관리 효자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이다.